

말씀의 샘

부활의 관점 <요한복음 11:17~26>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이 가진 관점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의 행로를 향하여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원인에 집중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그 일이 발생했는지부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누군가의 실수를 생각해야만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보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후회를 해야합니다. 물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의 실수를 줄이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에서 이 '왜?'라는 질문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좋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로 출발하면 해결책, 건전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답이 나오지 않는 '왜?'라는 잘못된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답을 얻게 되기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결론으로 끌어가는데 능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된 선악과 사건도 내용상으로는 '왜?'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왜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답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원인중심의 생각은 믿음으로 우릴 인도하질 못합니다. 우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라는 질문만을 반복합니다. '왜 우릴 여기로 인도했느냐, 왜 우릴 끌고 나왔느냐' 라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물이 없을 때도, 양식이 없을 때도 항상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죽은 관점과 사고방식을 믿음의 방식으로 바꾸는데 40년의 훈련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같은 사람을 보고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9: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시작부터 원인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랬어?"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가 실패하고 왜 그가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을 보면, '왜?'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목숨 다해 행하는 그의 사역에 계속적인 불행과 고통과 불운이 닥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앓은병이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합니다. 죽을 만큼 맞은 것입니다. 또 그가 그토록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아시아로의 선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유령으로 가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을 거점삼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깁니다. 로마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는 생각지 않게 독사에 물립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집어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바울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관점은 힘겨운 시험과 환난속에서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바울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부활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우리의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 집중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찰나에도 주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 11: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답변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주님 자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미 그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실로 인해 단정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 1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마르다의 이런 모습이 되진 않습니까?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아멘"했으면 주님이 성큼성큼 무덤 앞으로 가셨을텐데 과거에 매여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마을 입구에 그냥 서계신 것입니다.

요 11: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부활의 관점이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깊숙이 들어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2016. 4. 10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4. 1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20:19~31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행복"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